

힐링·환경 공부 다 되는 오감만족 ‘핫플 여행’

성동구는 도시재생을 통해 관광매력을 더한 서울의 대표적 인 곳이다. 이 지역은 2010년대부터 폐공장 부지들이 있던 골목에 문화공간이 하나둘씩 생겨나면서 새로운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젊은세대를 위한 공간 뿐만 아니라 환경과 리사이클링을 테마로 한 다양한 시설이 있어 아이와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한나절 교육여행을 떠나기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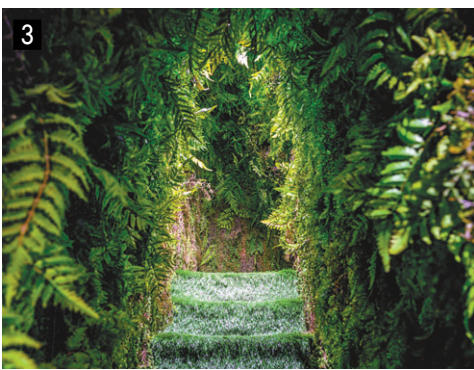
인공 자연공간 ‘섬세이 테라리움’
맨발로 걸으며 쉬는 자연 만끽

복합문화공간 ‘서울새활용플라자’
업사이클링 과정 직접 보고 경험

센트럴파크 부림지 않은 ‘서울숲’
야생동물 만나고 정원서 인생샷



1 겨울에 사진찍기 좋은 서울숲의 설렘정원. 2 우리나라 수도의 역사와 생산과정을 소개하는 수도박물관 본관의 전시물. 3 섬세이 테라리움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복도 계단. 마치 숲을 거니는 것처럼 꾸며놓은 것이 인상적이다.



3 섬세이 테라리움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복도 계단. 마치 숲을 거니는 것처럼 꾸며놓은 것이 인상적이다.

●자연을 느끼는 오감의 추억

섬세이 테라리움은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인 섬세이가 브랜드 리뉴얼을 기념해 조성한 인공 자연공간이다. 흙, 나무, 모래, 자갈, 바람을 활용해 일상에 서 자연을 느끼도록 공간을 꾸몄다. 특히 이곳은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으며 관람하는 것이 특징이자 매력이다. 외부의 시각과 청각을 차단하고 손끝과 발끝의 감각으로 걸어가는 지하 1층 ‘블랙 아웃’부터 맨발에 느껴지는 모래나 물의 느낌을 즐기는 ‘샌드 오브 덴’, 루프탑의 ‘리프레스 화이트 센스’ 등 자연에서 경험한 오감을 추억하는 공간들로 이루어졌다.

📍독성역 8번 출구 도보 7분&서울숲역 5번 출구 도보 5분

성수연방은 화학공장이던 것을 리모델링한 공간이다. ㄷ자형 건물에 개성 있는 맛집, 카페, 숍 등이 자리했다. 1층 평굴스토어는 스물 브랜드 마켓 편집숍

‘평굴시장’의 오프라인 매장이다. 다양한 콘셉트의 쇼룸을 통해 거실, 주방, 욕실, 세탁실, 작업실, 옷방 등을 떠올리는 공간과 그에 맞는 제품을 판매하는 복합 라이프스타일 스토어를 표방한다. 3층에는 투명 통유리와 하얀 천으로 만든 지붕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이 매력이 천상가옥 카페가 있다.

📍성수역 3번 출구 도보 5분

●새활용과 도시재생의 다양한 체험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새활용(업사이클)에 대해 보고 배우고 경험하는 복합 문화공간이다. 새활용하우스, 꿈꾸는 공장, 소재은행 등이 있다.

새활용하우스는 업사이클 인식 확산을 위해 작업장, 메이커 스페이스, 공연 및 강연장으로 구성된 전시공간이자 복합문화공간이다. 꿈꾸는 공장에서는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하 1층의 소재은행은 일

상에서 버려진 폐기물들이 새활용 상품으로 재탄생 되는 과정을 보고 경험하도록 구성했다.

📍장한평역 8번 출구 도보 15분&장한평역 서틀버스

수도박물관은 20세기 초반 지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정수장인 독도수원지 제1정수장 시설을 활용한 상수도 전문 박물관이다.

옛 정수장 건물을 박물관으로 재생하여 서울의 상수도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 본관건물이 예전 독도수원지의 송수 펌프실이다. 붉은 벽돌에 박공지붕을 씌운 모습이 인상적이다.

입구 오른쪽에 대한제국 연호였던 광무 11년(1907년)이라고 한자로 적힌 표지석이 눈길을 끈다. 상수도 관련 기술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했는지를 알려주고 물과 환경을 주제로 한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있다.

📍서울숲역 3번 출구 도보 7분

●국내 업체 70% 모여있는 수제화 거리

서울숲은 뉴욕의 센트럴파크나 런던의 하이드 파크처럼 도심 속 녹지공간을 표방하여 만든 공원이다. 요즘 방문하기 좋은 곳은 폭설 생태소 구역이다. 야생동물의 서식공간으로 사슴, 고라니 등을 키우고 있다. 도시에서 만날 수 있는 식물들을 다양한 주제로 소개하는 정원 프로젝트인 설렘정원과 겨울정원도 있다.

📍서울숲역 4번 출구 도보 5분, 생태숲까지는 20분

성수동은 우리나라 수제화 제조업체의 70%가 모여 있는 곳이다. 90년대 외환위기를 겪으며 당시 땅값이 저렴했던 성수동에 수제화 업체들이 모여들었다. 현재 350여 개가 넘는 수제화 완제품 생산업체와 100여 개의 중간 가공 및 원부자재 유통 업체가 있다. 구두를 만드는 손을 묘사한 거대한 조형물이 인상적인 수제화 거리가 조성되어 있다.

oldfield@donga.com



제주드림타워의 한라산 소주 칵테일 4종.

제주드림타워, 한라산 칵테일 4종 선보여

제주를 대표하는 향토 소주인 ‘한라산’이 호텔 믹솔로지스트의 손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해 사랑받고 있다.

한라산 소주는 1950년에 탄생해 4대째 내려오는 제주의 대표적인 향토술이다. 제주드림타워는 2020년 12월 개장 이후 1년여 간 4만 병에 가까운 판매(3만9644병) 실적을 올렸다. 국내 호텔에서 연간 소주 4만여 병 판매는 유례를 찾기 힘든 진기록이다. 최근에는 그랜드 하얏트 제주의 식음업장 6곳에서 첫 선을 보인 한라산 소주와 허벅술을 테마로 한 칵테일 등이 시그니처 메뉴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그랜드 하얏트 제주의 믹솔로지스트들이 개발한 칵테일은 모두 4종으로 한라산 21과 허벅술을 베이스로 했다. 한라산 21을 베이스로 한 쏘히토, 살구사워는 38층 포차와 카페 8, 녹나무에서 맛볼 수 있다. 허벅술을 베이스로 한 칵테일은 제주 슬링과 제주 마가리타로 스테이크 하우스와 라운지 38, 유메아마 등에서 제공한다.

김재범 기자

대한항공, 친환경 항공기 내달 본격 운항

대한항공이 도입한 보잉사의 차세대 친환경 항공기 737-8 1호기가 13일 김포공항에 도착해 감항성 검사 등을 거쳐 3월1일부터 본격 운항에 들어간다. 대한항공은 올해 6대를 비롯해 총 30대의 보잉 737-8 기종을 도입할 예정이다. 보잉 737-8은 효율성과 신뢰성, 운항능력을 극대화한 차세대 친환경 항공기다. 188개국에서 운항 허가를 받았고 아메리칸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싱가포르항공 등 36개 항공사가 이 기종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737-8 부품 제작에도 참여해 윙렛과 플랩 서포트 페어링을 부산 항공우주사업본부에서 생산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 VIP에 백화점 멤버십 혜택

신세계면세점은 신세계백화점과 멤버십 제휴를 맺었다. 앞으로 백화점이 VIP 고객에게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면세점 회원들도 받을 수 있다. 신세계면세점의 VIP 및 BLACK 등급 회원은 신세계백화점 VIP클럽 혜택도 제공한다. 현재 신세계면세점 멤버십은 VIP는 6000점, 블랙은 4000점 이상 쌓았을 때부터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신세계백화점 VIP 회원에게도 면세점의 VIP 멤버십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신세계면세점은 VIP 등급을 올해까지 연장 운영한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lopspe@donga.com

동계스포츠·퍼레이드 이색 체험…롯데월드가 부른다

서울 잠실의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인스타그램에서 SNS 인증샷 명소로 중심으로 늦겨울 가족 나들이 콘텐츠로 선보이고 있다.

현재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명소는 매직 캐슬이다. 최근 SNS에서 3D맵핑 영상을 활용해 새롭게 변신한 매직캐슬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동계스포츠 테마의 이색 포토존도 눈길을 끈다. 어드벤처 2층 바르셀로나 광장에서는 미니 아이스하키와 미니 컬링을 체험

할 수 있다. 3.8m 크기의 실제 봅슬레이 썰매도 직접 타고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이 밖에 1층 드림캐슬 앞의 눈 쌓인 마을을 구현한 공간을 비롯해 어드벤처 퍼레이드 코스의 눈꽃 가로등과 은하수 터널, 메인브릿지 등 파크 곳곳에 다양한 ‘사진맛집’들이 있다.

아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있다. 샤론트 프리미엄 라운지에서는 화려한 동화 속 주인공으로 변신해 롯데월드 퍼레이드에 참여할 수 있다. 무대의상과 액세서

리 대어, 스타일링, 드레스, 메이크업으로 이루어진 전문가 메이크오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담 직원이 전 과정을 1대 1로 안내하고 체험 후에는 기념품으로 ‘To Go 미니 티아라’를 증정한다.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는 홈볼트 펄커처럼 잡하기 어려운 멸종위기 생물들을 볼 수 있다. 온라인교육 플랫폼인 꾸기(꾸리기 그라운드)를 통해 아쿠아리움 방문 전 해양생물에 대한 호기심을 해소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동계올림픽 테마 포토존에서 즐기는 미니컬링. 사진제공 | 롯데월드 어드벤처

이밖에 민속박물관에서는 28일까지 한 국사 심화 교육프로그램 ‘히스토리시 간탐험대’와 놀이형 역사체험 ‘한국식당’을 진행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2월 18일 (금) 음력: 1월 18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	---

 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소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호랑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토끼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용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능력이나 용기를 잃고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금전적 낭비가 따른다.	당장은 괴롭지만 마음을 굳게 가지고 있으면 이로움이 있다. 현재는 재능과 능력을 인정받기 힘들고 입장도 몇몇하지 못하다. 고난 속에서 연마된 실력은 마침내 욕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혼자서 일처리를 하지 말라.	잠언이설에 조심한 한다면 일을 벌이고 뜻을 펼치는 대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 더욱 적극적인으로 밀고 나가며 최선을 다하라. 교섭과 거래에 있어서는 강경책보다는 온화책을 쓰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친구들과 어울려 낭비할 수 있는 날이다.	기회를 얻어 공업을 이루는 운이다.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만사형통할 운세이다. 그러나 매사 항상 준비하는 마음 가짐이 필요하며 겸손하고 온화하게 생활하여 적을 만들지 않도록 하라. 하지만 운이 좋은 날이다. 황재수가 있다.	직장인은 능력을 인정받게 되지만 근처에 적이 도사리고 있으니 조심하라. 경쟁망동하지 말고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성실하고 진실 되게 생활하는 것이 좋다. 구직자는 곧 취업이 되겠으니 노력하라. 대폭적 승진이나 진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지출을 억제해야겠다. 낭비벽이 생김으로써 남는 것이 없게 될까 두렵다. 또한 사치는 금물이니 절투를 얹어야 하고 주변을 살펴쳐 나보다 못한 자를 도우면 후일 그 보답이 있을 것이다. 여성의 경우 남자 조심하라. 정신적 피해를 볼 수 있다.						
 말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양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원숭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닭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웅담샘에서 흐르는 가냘픈 물줄기의 형상이다. 어둠과 답답하며 고뇌 속에 머물러 있는 때이니 극단적 마음이나 경계망동을 삼가라. 그러나 지적인 일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밝은 미래를 암시해주고 있다. 지살 일에는 움직여야 한다. 움직여라.	이 보 전진을 위해 일부 후퇴할 시기이다. 따라서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을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될 것이며 남의 뒤를 쫓아간다는 식으로 생활한다면 별 무리가 없겠다. 서두르면 낭패 본다. 기다려라.	정성을 다하면 작은 소원 성취는 되겠지만 큰 소원은 아직 성취될 때가 아니다. 무리한 투자나 확장을 삼가하고 수입을 늘리기보다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다. 소극적 행동을 취하라.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는 날이다.	합부로 안간힘을 쓰지 말고 조용히 겨울철이 끝날 때를 기다려야 한다. 겨울이 오면 불이 멀지 않는 법이다. 오늘은 어떠한 노력도 통하지 않는 때이다. 기력의 회복과 길한 운세를 기다려야 한다. 도전적이며 지기 싫어하는 기운을 갖게 된다.	어떠한 위험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늘의 기운을 크게 모아 조복을 양육하는 산을 나타내는 운기이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해 충실한 방침을 세우고 착수할 때이다. 학업,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고집을 버리고 친애와 협조에 마음을 쓸 때다. 상대와의 의견이 전혀 다른 날이니 겸손한 마음으로 중용을 유지하면 길함이 있을 것이다. 끝까지 자기의 주장만 내세운다면 대립은 격렬해지고 결과가 나빠진다. 앞서거나 서두르지 말라.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768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충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